



#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 수입쌀 波高 고품질로 넘어야

## 주가 급락

33P 하락...1,340선 무너져

### 日 품종개발·생산조정 등 거울삼아 우리쌀 위상 확실히 다지는 계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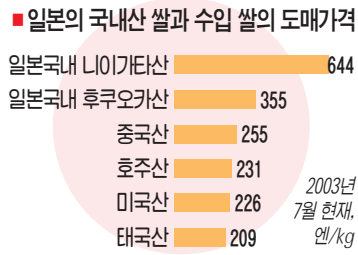
밥쌀용 수입 쌀에 대한 반응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우리 쌀의 확고한 위상을 다지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산 칼로스과 중국산에 이어 23일 태국쌀까지 공매에 들어가지만 수입쌀의 인기는 시들하다. 지난 18일 9차 공매에 부처진 미국 칼로스쌀 2천 200여톤은 응찰자가 없어 유휴됐다. 이날 함께 공매된 중국쌀 1천487톤에 대해서는 10개 업체가 참여해 9개사가 20kg짜리 207t을 낙찰받는 데 그쳤다. 이처럼 수입 쌀이 장시간 운반에 따른 품질하락과 각종 성분함량 부족 등으로 밥맛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소비자들부터 외면당하자 이를 계기로 우리 쌀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쌀 시장 개방이후 수매정책을 고수하다 명맥만 겨우 이어가고 있는 대만과, 대대적인 쌀정책 개혁과 고품종 개발로 수입 쌀 파고를 이겨 낸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02년 시장개방 이후 쌀 생산 과잉이나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은 소홀히 한 채 전량 수매 등 정부의 개입 확대를 유지해 왔다. 여기에서 농민들도 자구노력이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다 시장개방 3년만에 수입 쌀에 가격 및 품질경쟁에서 밀려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난 1971년부터 쌀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도입, 전체 생산물량의 38%까지 자율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직불제 도입 등 쌀정책 개혁을 이어 왔다. 또 일본은 우리



의 신토불이(身土不二)와 같은 개념의 국내산 농산물 소비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고급쌀 품종 개발에 힘써 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일본 국내 최고 품질의 쌀 도매가격은 일부 수입쌀의 3배를 넘지만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선호를 받아 확실한 입지

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 <표 참고> 이에 따라 우리 농민들도 밥쌀용 수입 쌀 시판을 전환점으로 정부의 보호막에서 탈피해 품질경쟁에 힘쓰는 등 '쌀 정책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조창완 연구원은 "과잉생산에서 벗어지는 가격하락 위험과 보관비용 부담 등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고품종 개발과 친환경농법 등 생산기술 향상도 우리 쌀 생존에 필수적인 요건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세에 또 다시 급락하며 1340선마저 무너졌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3.70포인트 떨어진 1338.50로 마감했다.

특히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데다 5일 이동평균선이 60일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지나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 약세장 전환 신호에 대한 우려감이 투자심리를 공포 얼어붙게 하고 있다.

한편 코스닥지수도 하루만에 하락 반전하며 640선에 턱걸이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4.86포인트 떨어진 643.70로 마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스승의 은혜에 감사” ‘무료 일본여행’ 내일 떠납니다

#### 광주일보·대주건설 공동

광주일보사와 대주건설이 공동으로 스승의 날을 맞아 지역 교사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마련한 '일본 규슈지방 역사문화 탐방단'이 24일(수) 떠납니다. 탐방단의 여행 경비는 '대주

피오레'라는 새 이름으로 친환경 경적 아파트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주건설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부담해 주었습니다. 광주일보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교사들에게 이와같은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 광주·전남 교사 45명...규슈 역사문화 탐방

##### ■참가자 명단

- ▲안충엽(조성남초) ▲박형경(순복초병설유치원) ▲이기에(혁신초혁신사분교장) ▲박준길(조도초상도분교장) ▲정인섭(광양사초) ▲정성현(화태초여동분교장) ▲정현택(목포상동초) ▲서광열(근의초백일분교장) ▲강성인(영암교) ▲김종관(지리산학생수련장) ▲윤재학(진도실고) ▲류재춘(옥과중) ▲김석형(보성고) ▲백종연(백제고) ▲이순일(담양교) ▲김용인(광주중앙초) ▲이정순(금호초) ▲박태수(광주공고) ▲박치남(광주수창초) ▲이춘복(광주효동초) ▲윤신동(광주동초) ▲김승태(광주 동운초) ▲이명사(두암초) ▲안기남(일신초) ▲김기창(송정서초) ▲박정우(봉산초) ▲최현주(정암초) ▲조은미(대만초) ▲윤은숙(송우초) ▲김영수(풍영초) ▲이순례(효광초) ▲김영송(송정중앙초) ▲임애자(광주무등중) ▲정성애(일곡중) ▲박홍수(조대부중) ▲박미정(송원여중) ▲송옥(봉산중) ▲정연자(광주화정중) ▲이봉규(호남삼육고) ▲위은량(광주중앙고) ▲윤영섭(광주진흥고) ▲서경숙(운남고) ▲허만진(광주체육고) ▲정찬선(조대여고) ▲박광용(전남여상고)

■행시기간 : 2006년 5월 24일~27일(3박4일)

■탐방코스 : 광주~부산~후쿠오카(마한 유적지 요시노가리·후나야마 고분)~구마모토~아소산~벳부(유노하나·바다지옥·다카사키 원숭이공원·지열발전소·고마츠지옥)~후쿠오카(태재부천만공)~부산~광주

■주 관 : (주)조이트래블 (062-234-3222)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062-2200-541)

光州日報社·九州建設株式會社

## 흥기 휘두른 지씨 살인미수 영장

### '차대표 피습' 수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대표 테러범 지중호(50)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선거 자유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세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박 모(52)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3면>

합수부는 지씨와 박씨를 대상으로 범행동기, 공모여부, 배후 세력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합수부는 또 이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21일 밤 벌였다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지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오르려던 박 대표에게 흥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지씨가 살고 있는 친구 집과 박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정밀 분석 중이다. 합수부는 이들의 통화내용도 조화해 통화자를 추적하고 있다.

박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유세현장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



### 투표용지 6장 꼭 기억하세요

광주 동구선거위가 22일 5·31 지방선거에서 사용하게 될 6장의 투표용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위쪽 왼쪽부터 광역단체장(백색), 비례대표 광역의원(청색), 지역구 광역의원(하늘색), 또 아래쪽 왼쪽부터 기초단체장(연두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 지역구 기초의원(계란색) 투표용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이종욱 WHO 사무총장 별세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 수장인 이종욱(사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22일 사망했다. 향년 61세. <관련기사 20면> 이 총장은 지난 21일 오후 제네바 칸톤병원에서 뇌혈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22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 운명했다. 부인



가라귀라 레이코 여사와 동생 이종구 교수가 고인의 임종을 지켜냈다. 이 총장은 지난 2003년 WHO의 총지휘자로 공식 취임했으며, 한국인으로는 국제기구 최고직이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후원학원 장학 56년 역사명문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입학문의 062-220-0114 ▶T.062-220-0007

새로운 담시기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im.ac.kr

▶입학문의 062-220-2057 ▶T.062-360-5000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홈페이지 www.kwangju.co.kr ▶문의처 (062)220-0541, 222-8111



# 전남의 운명을 바꿉시다!

## 저 박준영,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도민 여러분의 믿음을 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전남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도민 여러분의 믿음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선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남의 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전남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전남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도민 여러분의 믿음을 얻고자 합니다.

선리도에서 희망!

3 박준영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